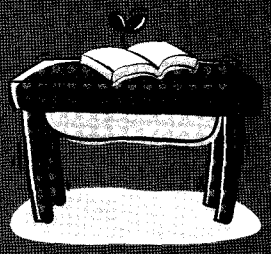
수도권 전체가 국지성 폭우로 인해 온통 난리다.

시간당 100㎜가 넘는 강우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도로와 가옥들이 무너지고 침수됐다.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로 인해 도로가 통제되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한집 건너가면 다 아는 사람들이라고 주변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고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은 상황이 됐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원봉사대, 소방관, 경찰, 국군 장병들이 복구 작업 등 사태수습에 나서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국지성 호우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하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돼야…

본지 · 김한웅 상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극단적인 기후가 일상화 되고 있는 것은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가 원인이라고 한다.

한반도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같은 폭우, 폭염, 폭설 등 이상 기후 현상은 언제,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것이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우, 폭설을 비롯해 태풍의 발생 등은 기후에 대한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고 발생하는 현상으로 앞으로 더욱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 닭고기 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당장 마니커 동두천공장이 침수돼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육계 사육농가들의 침수 피해도 잇달아 보고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폭우가 내렸던 포천, 파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을 비롯하여 이천, 용인, 양평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확한 숫자는 최종 피해 집계가 완료돼야 알 수 있겠지만 1차 피해 집계로는 대략 50만수 내·외가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 사태가 수도권 등 중부지역에 집중했기 때문에 남부지역의 피해는 없지만 점차 남부지역으로의 확산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천재지변으로 극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가뜩이나 잦은 비와 이상기온으로 초복(初伏)·중복(中伏) 등 대목기간 중 재미를 보지 못했던 닭고기 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지게 됐다.

현재로서는 8월 이후 육계경기도 썩 좋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소비는 돼지고기 가격 강세 등으로 3~5% 정도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종계입식 숫자의 증가로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돼지고기 가격의 급등으로 일부 대체수요가 일어난 것을 이미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미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8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 폭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특별한 호재가 있어 소비가 크게 늘어난다면 모를까 현재의 상황으로는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 닭고기 업계의 상황이다. 예상치 못한 피해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로 작용하는 만큼 철저한 대책마련에 나설 때이다.